



## 동북권

### •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.8%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+1.8% = 소매업의 기여도 -5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7.3%p  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※관련실명=부록의7 여도참조
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8.0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23.9% 상승

- 동북권은 의복·섬유·신발(8월 26.1% ⇨ 9월 1.6%), 무점포소매(8월 7.6% ⇨ 9월 5.7%) 등이 증가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(8월 0.7% ⇨ 9월 -21.5%), 기타상품(8월 8.0% ⇨ 9월 -5.3%) 등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가전제품·정보통신(8월 -9.0% ⇨ 9월 -22.4%), 기타가정용품(8월 -8.4% ⇨ 9월 -14.3%), 종합소매(8월 -1.2% ⇨ 9월 -9.8%) 등 세부 업종의 하락폭이 확대하며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다시 감소세 전환.
  - 9월 동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  - 반면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기타가정용품, 종합소매, 기타상품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동북권도 음식점(15.4%), 숙박(10.8%)의 상승폭이 감소하면서 주점·커피전문점(59.0%)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에도 숙박·음식점업 오름폭은 (전월보다) 감소
  - 9월 동남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,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## 동북권 소비경기지수



##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